



전통문화거리, 골동품·불교용품점...티베트·베트남 등 외제 불상 범람

인사동과 조계사 일대 불교용품점에는 반가사유상, 관음보살상 등 소장용으로 제작된 작은 불상들이 즐비하게 진열돼 있다. 이 일대 거리에 들어선 60여개에 이르는 불구점(佛具店) 앞에서 불자들은 물론이고,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이 발길을 멈추고 불상을 이리저리 살피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불상이 대량으로 '찍어낸' 싸구려 중국산 불상이라면... 암담하지만 현실이다. 요즘 골동품 상점 및 불교용품점에는 중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지에서 대량으로 주조된 수입 불상이 가득하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최근 불구점(佛具店)의 상인들은 이 같은 사실을 드러내 놓고 홍보에 나선다. 쉬쉬하는 가운데 눈속임으로 팔아치우던 몇 년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인사동의 한 골동품 상인은 "인사동에서 한국불상은 100% 없으니 고민할 것 없이 저렴한 중국불상으로 골라 가라"고 권할 정도다. 수입 불상이 범람하는 이 시대, 과연 무엇이 전통 문화의 거리를 허접스러운 '외제'로 도배하게끔 했는가.

“인사동엔 한국불상 없어요”

‘불상=돈’ 인식에 공급·수요자들 이해 관계 맞아떨어져

▽중국 불상, 한국 불상의 10분의 1 가격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가격'이다. 불상은 불구점이나 공방 등을 통해서 거래되는 거래품목 가운데 하나다.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 고문 송근영씨는 "중국불상의 경우 한국불상의 10분의 1에 가까운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한국 불상들을 몰아냈다"고 말했다. 재료와 인건비가 워낙 싸기 때문에 그 어떤 한국불상도 중국과 동남아 불상의 가격을 쫓아가지 못했다는 것. 그 상황에서 상인들은 비싼 돈을 주고 한국 불상을 들여놓을 이유가 없었다. 사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 불상에서 불모의 신성과 정성 따위가 있을 리 만무하다. 예 배용 불상 역시 중국 등지에서 수입돼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불상에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경우도 있다. 해동불교미술원 대표 신석운씨는 "한 불구점에서 한국불상의 10분의 1에도 훨씬 못 미치는 중국 절품을 살펴봤더니 납성분이 80%에 이르는 말도 안 되는 쇠덩어리였다"고 말했다. 수입 불상의 시장이 커지면서 한국 불모들의 생계가 힘들어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한 전통 공방의 대표는 "일이 10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며 "조만간 다른 일을 시작할 생각으로 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 전통조각가는 공방을 뛰쳐나와 택시 기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대량 주조로 '찍어 나오'는 불상 판처 '중국 것 뛰어나다' 왜곡된 정보로 유혹

상은 또다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인사동 골동품 상인 박승규(한림원 대표)씨는 "싱가포르의 농사를 짓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수입해 오는 것이 더 싸게 먹히기 때문"이라며 "거래 품목이 불상이 됐건 불화가 됐건 상인들이 실리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수입 불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불상' 더 선호해 업계 현실 공론화 통한 개선 노력 필요

씨는 최근 "불모를 직업으로 선택한 것은 명백한 판단착오였으며, 이런 상황에서 신심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개소리"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한국 전통문화의 거리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외제 불상을 권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문제다. 인사동 골동품 상점 주인들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불상을 고를 때는 항상 '한국 불상인지'를 먼저 확인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결국 사가는 것은 중국 혹은 미얀마 불상이다. 외국인들에게 한국 불상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한국 인연엔 전통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것은 시간문제다.

▽한국 불모 일거리 10분의 1로 줄어... 중국불상에 납성분 가득
이처럼 한국불상이 불교용품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불모들은 이제 더 이상 불상(小佛)을 제작하려 하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불상 양식이 없음을 고민하는 것은 욕심일지도 모른다. 동국불교미술인회 김광현씨는 "우리나라 천주교계에서는 밀려드는 필리핀 성모상을 통제하지 못해 성모상 생산의 맥이 끊어졌다"며 "수입 불상의 잠식 상황이 지속 악화될 경우 불교계 역시 그 같은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고 말한다. 수입 불상의 조악함도 큰 문제다. 수입 불상은 대량 주조가 용이하도록 청동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틀의 모양대로 '찍어 나오

▽스님·불모·상인 다 함께 대안 모색해야
일반 상품과는 구별되는 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불상 역시 생산하고 소비해야 할 공산품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손실없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분쇄할 방도는 없겠지만, 여기에도 몇 가지 짚어야 할 사안이 있다. 불교 용품을 취급하는 상인들의 경우 이런저런 문제들을 덮어두고 그저 가격경쟁력 하나만 내세워 '팔아 제끼는' 경우가 많다. 한 전통조각 전문가는 "조계사 일대 불구점 주인들 가운데 중국이나



인사동의 한 골동품 상점에서 불상을 고르고 있는 관광객. 불상의 원산지에 관해 물자 그는 "당연히 우리나라 불상 아니에요?"라고 반문한다.

신입생 모집 공고

불기 2549(2005)년 梵魚寺 僧伽大學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처문반 00명 ■ 모집기간 : 4월 1일(금) ~ 4월 21일(목)

■ 정규과정 외 특별강좌

개설과목	강사	약력
팔리어	마성수님	스리랑카 팔리대학교 M. Phil. 現 동국대학교 강사
불교영어	Dr. Alok Roy	인도 델리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정치학박사 現 부산 외국어대학교 인도어과 교수
영어회화	Dr. Hettiaratchi	영국 런던대학교 사회학 박사 스리랑카 자와트라프라대학교 前 총장 前 프랑스, 스페인, 유엔 대사
의례의식	정각수님	現 동국대학교 불교학과교수(철학박사)
서예강좌	경선수님	現 범어사 성보박물관장

■ 제출서류
1) 입학지원서 및 서약서(강원 소정양식) 각 2부 2) 은사스님 추천서 2부
3) 건강진단서 2부 4) 승려증(행자교육필증, 수계증명서) 사본 2부
5) 사진(오조가사나 만의복장, 2×3 규격) 4장

■ 준비물 : 대가사(비구), 만의(사미), 오조가사, 장삼, 발우, 방부비(20만원)

■ 전 형 : 서류심사, 면접

■ 문의처 : 강원 051)508-1165, 종무소 051)508-3123~7

禪刹大本山 梵魚寺 僧伽大學
學長 如天 無比 運營委員長 西林 大成

수신토종오가피 禮獻

禮獻(예헌)이란?
명절이나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국영에게 축하의 뜻으로 바치던 진상품을 일컫는 말

국내 최대의 토종오가피 재배자 신 광 수

24년의 기다림!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2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 예헌 禮獻

품질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과에서는 연구논문을 통해 오가피의 주요성분인 Acanthoside D의 기준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이 기준치와 비교하여 3~5배 이상 Acanthoside D 함량이 함유된 원료로만 생산됩니다.

오직 900개만 매일 한정판매합니다.
월 1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저희 수신토종오가피에서도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1달에 오직 900개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씨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24년생이상의 오가피만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수신토종오가피의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목재를 방지하는 홀로그램에 매일 001번부터 900번까지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선물하시는 분께 그 가치와 품격을 인정드립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및 무료자료 신청 **02-968-0005**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어가 사명호 교수가 직접 제작한 분청사원을 드립니다.